

'박연차 리스트' 있다? 없다?

'국세청관'·'여의도관' 소문 무성 부산지역 의원·친노그룹 긴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산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소위 '박연차 리스트'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 회장이 급진전되면서 검찰이 정치권 로비 의혹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국세청관', '여의도관' 박연차 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은 정치권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지만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야권은 물론 여권 인사들의 이름도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다.

"마당발"로 정권이 나있는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의 인맥쌓기에 주력해왔다면 정권이 바뀐 올해부터는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접촉하지 않았겠느냐는 것.

또한 박 회장이 한나라당의 안방인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기업가라는 점

에서 이 지역 출신 의원들과 두루 교분을 쌓아오지 않았겠느냐는 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 지역 한 의원은 "박 회장은 부산에서 통도 크고 보폭이 넓은 기인(奇人)으로 알려져 있다"며 "따라서 부산을 기반으로 오랜 정치생활을 한 사람들은 측각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 지역에서 박 회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아 정치인들중 상당수가 박 회장을 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역 한 재선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후원금을 제공했을 수는 있어도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만큼 한나라당 의원들이 쉽게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연차 리스트'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후원자인 데다 검찰에서 야당 의원 연루설이 흘러나온 만큼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박연차 태광산업 회장이 15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후 10일 밤 귀가를 위해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심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비상시국이라서 그런지 사석에서도 박연차 비자금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는다"며 "여야 의원들의 연루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있으니 관심은 가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참모 출신인 친노그룹도

이번 사건에 대해 한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 친노 성향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비서 출신들은 부산쪽 사람들의 흐름을 잘 모른다"며 "박 회장의 주식 차명거래 실태가 파악되면 사건의 전말이 보일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와 별개"

한나라 박재순 최고 "야당 예산심의 협조" 촉구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나라당 박재순(사진) 최고위원이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정비사업은 치수와 수질개선, 물부족 해소 등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고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홍수대비 치수사업을 대운하와 연결하려는 자체는 심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정비사업은 다목적 프로젝트 갖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박재순 수석이 말한 것처럼 한국관 뉴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에 반드시 필요하다



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야당은 전폭적으로 예산 심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예산안이 있는 호남지역의 경우 전남도지사과 광주시장은 물론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모두 치수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실득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행안부 2차관 "지자체 예산 60% 이상 조기 집행"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약 200조원 가운데 60% 이상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전망이다.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11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년 지자체 재정 집행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차관은 민생안정 정책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 규모가 내년에도 20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상반기까지 90% 이상 발주하고 자금 집행도 60% 이상 되도록 계획"이라며 "그러면 아마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돈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대형회 폭우 피해라든지 태풍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재해대책비 여유가 있어 재해 예방사업에도 1조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며 "그러면 재난 위험·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도 되고 지방 건설사들에 대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이어 "중부세 세제 개편에 따라 지자체 지원 액수가 줄어든다 보니 재정강

소 보전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요구가 많다"며 "그래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아마 조만간 결실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마무리 협의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이날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2010년 도입'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정부 내 입장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작업을 거쳐 시행 시기는 그렇게(2010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은 이와 함께 국제 대비 지방세 비율을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대비 지방세 비율이 일본은 6대 4인데, 우리는 8대 2"라며 "지금까지 국제 위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우며, 점차적으로 조금씩 비율을 높여가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이 밖에 내년 지방공무원 4천 200명 채용 계획과 관련, "가급적이면 빨리 채용을 실시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잇단 의원직 상실...18대 의원 13명 '위기'

무소속 이무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된 가운데 18대 국회의원 13명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다.

11일 대검찰청과 각급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대 총선 당선자 34명 중 14명이 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이무영 의원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이뤄졌다.

이한정 의원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창조한국당이 대법원에 낸 당선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져 의원직을 잃었다.

이제 남은 12명에다 단국대 이천 사업비 리 혐의(배임수재)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민주당 김종률 의원까지 더하면 의원직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온 의원은 현재까지 13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혹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금배지'가 위태로운 의원들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4명(구본철·윤두환·안형환·박종희), 민주당 3명(정국교·김세웅·김종률), 친박연대 3명(서정원·양정래·김노식),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2명(김일운·최유철)이다.

최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비례대표 상위 순위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친박연대 서정원 공동대표도 '공천 현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는 등 그동안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잇따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의원들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 환경병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김재균·변재일 의원은 1·2심에서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단은 한숨을 돌렸다.

/연합뉴스

2010학년도 교사 임용시험대비

곽내영교육학

교사임용, 진짜 승부는 교육학에서 결정된다!
곽내영교육학에서 습득한 학습방법론이야말로 교사임용시험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겨울방학특강 사전예약접수중
개강: 1월 2일(기본 이론 2개월완성)

교과교육학 학습방법론 강의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눈술 참석지도 실시

똑똑한 강의 선택!
한 번 배워 평생가는
학습방법론 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동파
곽내영 선생 저자직강

교원임용 동영상강의 전문 - www.eduvview.net

에듀뷰넷

교원임용 공개설명회 : 비번 임용시험제도 안내 및 효율적인 학습방법 상담
등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방문 전화 주십시오.

교원임용고시 전문
곽내영고시학원 수강문의 광주 (대)529-0090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겨울방학을 맞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교수진 총출발! 합격의 확신을 드립니다.=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별 교세관법검찰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판정진호지방술

'09년 시험안내
시험일자: 9급 국가직 4월 11일, 7급 7월 25일 시험
채용인원: 국가직 3,200명-지방직 총4,242명 모집
보수월 903, 경기 885, 전남 309, 광주 119, 전북 206명

합격 회원 모집
6개월: 90만원 (교재17만원포함)
주·야간반+기초(英·國) 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실함.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222-4560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저렴한광고비
뛰어난 광고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매입·매매·임대·전세·부동산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월 2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기본서 첫 진도 시작반 국비지원 재직자반은 개강일 전에 수강신청 해야합니다.

국비지원 교육보험제자 교육비환급 선택수 60명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45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목포점 개원
12월 18일 공개설명회
오전 10시~12시
목포항지구 대성원 건물 3층
(061)277-8111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확정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롭빌딩 4층